

새로운 <直指文化>의 創出에 관한 序說

An Introductory Study for the Creation of the 'New Culture of Jikji'

朴文烈(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言 | 5. 直指世界化의 現狀과 課題 |
| 2. 『直指』의 現狀과 課題 | 6. 새로운 <直指文化>의 創出을 위하여 |
| 3. 興德寺의 現狀과 課題 | 7. 結論 |
| 4. 淸州古印刷博物館의 現狀과 課題 | <參考文獻> |

< 초 록 >

본고는 『直指』, 興德寺, 淸州古印刷博物館, 直指世界化 등의 現狀에서 나타나는 課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直指文化>의 創出을 위한 序說로 고구된 것이다.

새로운 <직지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1) 『直指』에 대한 '定說' 확립과 활자의 복원을 위한 세계적인 연구프로젝트가 준비되고 (2) 淸州古印刷博物館에 『直指』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학술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하며 (3) 우리나라의 세계적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國家記錄遺産委員會가 구성되고 (4) 『直指』를 주제로 하는 엑스포나 비엔날레 형태의 淸州印刷出版文化博覽會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要語 : 直指, 興德寺, 淸州古印刷博物館, 直指世界化, 國家記錄遺産委員會, 淸州印刷出版文化博覽會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科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04년 8월 16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ort to create the new 'culture of *Jikji*' by understanding better and promoting more interests in such phenomena as *Jikji*, Heungdeoksa Templ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and the globalization of *Jikji*.

To create the new 'culture of *Jikji*', suggested are the following: (1)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search projects to establish the theory and history of *Jikji* and restore those metal types should be conducted; (2) An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should be founded in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3) A National Committee on Preserving Historical Records should be organized to manage and advance valuable cultural and historical written legacies of the world level; and (4) The Cheongju Exposition on Printing and Culture should be regularly held in either as the Exposition or the Biennale.

Keywords : *Jikji*, Heungdeoksa Templ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Globalization of *Jikji*, National Committee on Preserving Historical Records, The Cheongju Exposition on Printing and Culture.

K C I

1. 緒言

『佛祖直指心體要節』¹⁾은 1377(高麗 禑王 3)년 淸州 興德寺에서 간행된 현존 세계 最古의 金屬活字本이다. 우리민족의 創造的·科學的 정신의 결정체인 『直指』는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UNESCO) ‘세계의 기억(the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어 앞으로 청주는 물론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指南될 세계기록유산이다.

『直指』의 價値와 重要性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直指』에 관련된 적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直指』에 관한 이해의 부족과 ‘定說’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부족에서 말미암은 것인 듯하다. 이제 바야흐로 『直指』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절실한 때이다. 『直指』의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直指文化>가 창출될 때, 비로소 淸州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기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直指』·興德寺·淸州古印刷博物館·直指世界化 등의 現狀에서 나타나는 課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중심으로 일반의 『直指』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감소시킴으로써, 『直指』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直指文化>의 創出을 위한 序說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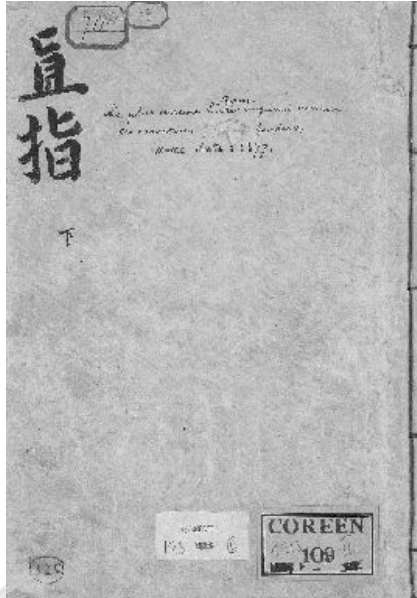
2. 『直指』의 現狀과 課題

우리가 알고 있는 『直指』의 현상은 매우 단순한 듯하나, 『直指』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과제들은 그리 단순하지만도 않다.

2.1 『直指』의 現狀

1) 이하에서 『佛祖直指心體要節』은 『直指』로 略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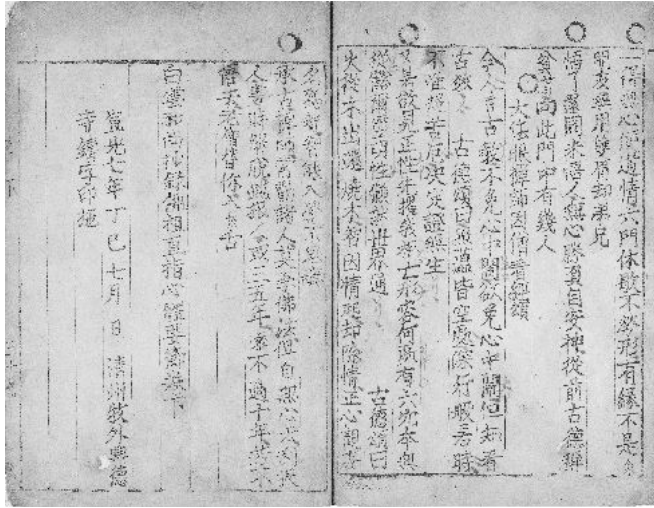
홍덕사본 『直指』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으나 첫째 장이 缺落된 하권 38장 1책만이 프랑스國立圖書館 東洋文獻室에 전래되고 있다.



〈圖版 1〉金屬活字本 『直指』의 表紙

『直指』의 版式에 있어서 邊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21.0×14.8 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11행 18~20자이며 註文은 雙行이다. 版心에는 魚尾가 없고 版心題는 『直指』이며, 卷末題는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고 書根에는 『直指心經』이라 墨書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4.6×17.0 cm이며 紅絲로 五針眼訂한 線裝本이다. 紙質은 얇은 白색 楮紙이며, 本文 전체가 아주 얇은 종이로 裱接되어 있다. 표지는 후대에 改裝한 것으로 보이며, 表題의 '直指'도 후대에 木書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모리스 쿠랑이 썼다는 1377년이라는 연대와 함께 '구조된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국 인쇄본이다'는 프랑스어 識語가 있다. 권말의 刊記에는 '宣光七年丁巳七月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는 간행의 연월

과 간행처가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는 綠化門人인 釋璨과 達湛 및 施主人 比丘尼 妙德 등 『直指』의 간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명이 나열되어 있다. 판면의 인쇄상태는 첫째 장이나 마지막 장에 찍혀진 묵색이 비슷하여 비교적 선명한 편이다.



〈圖版 2〉 金屬活字本 『直指』의 刊記

『直指』의 金屬活字本으로서의 특징은 (1) 본문의 行列이 바르지 않고 비뚤어져 있으며, 그 중에는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경우도 있다. (2) 印出된 字面에서 나타나는 墨色의 濃薄度에 차이가 심하고 반점이 나타나있는 경우가 많다. (3) ‘日’이나 ‘一’ 등의 글자는 아예 거꾸로 植字된 경우도 있으며, 어떤 글자는 인쇄 도중에 탈락된 경우도 있다. (4) 동일 면에서 동일한 활자의 같은 글자모양이 보이지 않으나, 동일한 활자가 다른 장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5) 글자의 획에 너털이와 티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²⁾ 등이다.

2)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金光植, 『直指』觀察記, 『古印刷文化』 第2輯(1995), pp.179-190.>을 비롯하여 <김기태, 『『직지심경』의 보존경위에 대한 고찰, 『규장각』 제6집(1982), pp.63-89.>, <朴文烈, 『高麗金屬活字本 『佛祖直指心體要節』의 現代의 意味,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pp.125-

2.2 『直指』의 課題

『直指』의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여러 가지이다.

(1) 書名

『直指』의 본래 서명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나 현재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佛祖直指心體要節」, 「心要」, 「心體要節」, 『直指』, 「直指心經」, 「直指心要」, 「直指心體」, 「直指心體要節」, 「白雲直指心體」 등으로 불리고 있다. 동일 서적에 대한 다양한 異稱의 사용으로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은 적지 않은 오해와 혼동³⁾을 겪고 있다. 『直指』의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및 直指世界化를 위해서는 일반인이나 외국인들이 제대로 읽고 기억하기 쉬운 통일된 略書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直指』의 서명은 『直指』이며, 유네스

154.>, <朴文烈, 「印刷術 起源說과 高麗時代 金屬活字印本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6輯(2000), pp.79-109.>, <윤병태, 「고려인쇄문화상의 『直指心體要節』의 위치」,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127-145.>, <천혜봉, 「고려금속활자인쇄와 『직지심체요결』」, 『청주홍덕사지학술회의보고서』(1986), pp.83-104.>, <천혜봉, 「세계 조유의 창안인 고려주자 인쇄」, 『규장각』 8(1984), pp.63-75.>, <千惠鳳, 「興德寺字本 『直指心體』의 印刷文化的 意義」,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化(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學術會議)』, pp.39-49.>, <黃正夏, 「『白雲直指心體』의 刊行 背景」,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7-199.> 등이 있으며, 원전과 주요 저술로는 <金榮振, 『忠北文化論攷』(서울: 향학사, 1997)>을 비롯하여 <朴文烈, 『고인쇄출판문화의 이해』(청주: 태일문화사, 2003)>, <白雲和尚 著, 『直指 下』 影印本(서울: 文化財管理局, 1973)>, <白雲和尚, 『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 國立中央圖書館藏本.>, <白雲和尚, 『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 佛甲寺藏本.>, <白雲和尚, 『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 藏書閣藏本.>,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尹炳泰, 『韓國의 古活字』(서울: 韓國出版販賣株式會社, 1987)>, <千惠鳳, 『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서울: 文化公報부 文化재관리국, 1988)>, <千惠鳳, 『韓國金屬活字本』(서울: 汎友社, 1993)>,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淸州古印刷博物館,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影印本(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2-2004)> 등이 있다.

3)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박병선, 「『직지심경』의 명명 사유」,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1-8.>을 비롯하여 <朴文烈, 「『佛祖直指心體要節』의 書名 통일방안」,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45-86.>, <金聖洙,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略書名에 관한 提言」, 『古印刷文化』 第6輯(2000), pp.111-129.>, <李世烈, 「『直指』의 어원 및 책이름에 관한 연구」,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201-287.> 등이 있다.

코 ‘세계의 기억’에는 「불조직지심체요절(Buljo-jikji-simche-yojeol)」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일반인이나 외국인에게도 비교적 읽고 기억하기에 쉬운 약서명이다.

앞으로 『直指』의 체계적인 교육·홍보·直指世界化 등을 위해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나 ‘Buljo-jikji-simche-yojeol’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약칭으로는 「직지(直指)」나 ‘jikji’로 표기하는 것도 좋을 듯⁴⁾하다.

(2) 著者·門徒·禪觀

『直指』의 저자는 白雲和尚(1298~1374)이다. 화상은 號가 白雲이고 法名은 景閑으로 忠烈王 24(1298)년에 전라도 古阜(현 井邑)에서 출생하였다. 忠定王 3(1351, 54세)년 5월에 중국 湖州의 石屋 清珙禪師에게 佛法을 구하여 恭愍王 2(1353, 56세)년 정월에 佛道를 체득하였다. 귀국 후 화상은 海州의 安國寺와 神光寺 등의 주지를 지내고 후진 양성에 힘쓰다 공민왕 21(1372, 75세)년에 成佛山에서 『直指』 2권을 저술하였으며, 공민왕 23(1374, 77세)년 驪州 鷲巖寺에서 臨終偈를 남기고 入寂하였다.

화상이 입적한 3년 뒤인 禡王 3(1377)년 7월에 제자들에 의해 淸州 興德寺에서 『直指』 금속활자본이 간행되었으며, 우왕 4(1378)년 6월에는 『直指』 목판본이, 7월에는 「白雲和尚語錄」 목판본이 제자들에 의해 여주 鷲巖寺에서 간행되었다. 화상의 門徒는 『直指』와 「白雲和尚語錄」 등을 통해 볼 때 李穡, 成士達, 法麟, 靜慧, 達湛, 妙德 등 30여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상의 禪觀은 禪敎의 일치를 주장하는 동시에 ‘無心無念’과 ‘無心無上’이 眞宗이라는 禪觀을 견지하였던 것⁵⁾이다.

4) 朴文烈, 『佛祖直指心體要節』의 書名 통일방안,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 (1999), pp.45-86.

5)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김동환, 『佛祖直指心體要節』의 내용과 유통,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 (1999), pp.91-120.>을 비롯하여 <朴文烈, 『高麗金屬活字本『佛祖直指心體要節』의 現代의 意味,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pp.125-154.>, <朴文烈, 『白雲和尚과 『佛祖直指心體要節』, 『인쇄문화국제포럼』 (1997), pp.120-135.>, <윤병태, 『고려인쇄문화상의 『直指心體要節』의 위치,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 (1999), pp.127-145.>, <鄭濟奎, 『白雲 景閑의 在家佛敎信仰觀, 『古印刷文化』 제5집(1998), pp.125-145.>, <천혜봉, 『고려금속활자인쇄와 『직지심체요절』, 『청주홍덕사지학술회의보고서』 (1986), pp.8

앞으로 (1) 백운화상의 출생(1298)에서부터 54세(1351)에 이르기까지의 50여년의 傳記, (2) 李穡, 成士達, 法麟, 靜慧, 達湛, 妙德 등 백운화상의 門徒들, (3) 백운화상의 思想과 禪觀 등에 관해서 더욱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⁶⁾이다.

(3) 著述의 動機·體制·內容

백운화상이 『直指』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스승 石屋禪師를 계승하여 ‘아버지가 礎石을 놓고 자식이 殿堂을 짓는 바’와 같이 ‘佛道에 들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후학들을 계도하려는 ‘繼師述志’와 ‘啓導後學’의 사상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 결과 화상은 壬子(1372)년 9월 당시 7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成佛山에 기거하면서 『直指』를 手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成佛山の 정확한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直指』의 내용은 ‘參禪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禪宗의 名句를 중심 사상으로, 過去莊嚴劫의 毗婆尸佛과 尸棄佛 및 毗舍浮佛, 現在賢劫의 拘留孫佛과 拘那含牟尼佛 및 迦葉佛, 인도(西乾)의 경우 初祖인 釋迦牟尼에서 28조인 菩提達磨까지, 중국(東震)의 경우 慧可, 僧璨, 道信, 弘忍, 慧能에서 淸源行思, 南嶽懷讓, 永嘉玄覺 등 도합 154가의 諸佛祖師에 이르기까지 307편에 이르는 偈·頌·贊·歌·銘·書·法語·問答 등이 수록⁷⁾되어 있다.

3-104.>, <黃正夏, 『白雲直指心體』의 刊行 背景,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7-199.> 등이 있으며, 주요 번역서 및 논저로는 <白雲景閑 編著, 如天無比 監修, 龍學 譯註, 『활자의 혼을 찾아서』 (청주: 西原大學校湖西文化研究所, 1999)>을 비롯하여 <白雲景閑和尚 抄錄, 圓照覺性 譯, 『佛祖直指心體要節』 (서울: 玄音社, 1999)>, <白雲和尚 著, 朴文烈 譯, 『佛祖直指心體要節』 (서울: 汎友社, 1997)>, <白雲和尚 著, 朴文烈 譯, 『譯註 佛祖直指心體要節』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6)>, <釋璨禪師 著, 朴文烈 譯, 『白雲和尚語錄』 (서울: 汎友社, 1998)>, <釋璨禪師 著, 朴文烈 譯, 『白雲和尚語錄』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8)>, <白雲和尚 著, 李世烈 譯, 『直指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7)>, <白雲和尚 著, 張二斗 譯, 『註解 直指 下』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1)>, <전혜봉, 『불조직지심체요절해제』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등이 있다.

6) 최근 全羅北道 井邑市 古阜에서 河德在 面長과 殷熙太 古阜文化圈保存事業會長 등을 중심으로 白雲和尚保存會가 결성된 바 있다. 앞으로 白雲和尚保存會의 활약을 기대하는 바이다.

7)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김동환, 『『佛祖直指心體要節』의 내용과 유통』,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 (1999), pp.91-120.>을 비롯하여 <朴文烈, 『高麗金屬活字本 『佛祖直指心體要節』의 現代의 意味』, 『書誌學研究』 第17집(1999), pp.125-154.>, <윤병태, 『고

앞으로 『直指』의 著述動機·體制·內容 등을 비롯하여 (1) 저술의 장소, (2) 鷲巖寺에서 입적한 연유 등에 관해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프랑스 所藏의 經緯

『直指』는 1901년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韓國書誌」附錄에 저록되었으나, 1972년 ‘세계 도서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전시회에 출품되어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되었다. 『直指』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1900년대 초에 프랑스인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가 『直指』를 수집해간 때문이었다. 1886년 5월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고 1887년 金允植(1835~1922)과 플랑시 사이에 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되어 정식 국교가 맺어진 이래, 파리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양어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플랑시는 1877년부터 6년간 북경주재 프랑스공사관 통역관으로 근무하다, 1888년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서울에 와서 1891년까지 머물렀다. 그는 이때 우리나라의 도자기와 고서를 수집하고 서기관으로 서울에 부임해온 쿠랑에게 수집한 고서의 해제를 권유하였다. 그 후 5년간 일본에 근무하던 플랑시는 다시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 총영사 겸 서울주재 공사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계속하여 고서를 수집하였는데 그 속에 『直指』도 포함되었던 듯하다. 1911년 3월 플랑시가 우리나라에서 수집해간 대부분의 고서는 경매를 통해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들어갔으나, 흥덕사본 『直指』는 당시 유명한 보석상이며 고전수집가였던 앙리 브베르(Henri Vever, 1854~1943)가 180프랑에 구입하여 소장하다가 1950년경에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⁸⁾

려인쇄문화상의 『直指心體要節』의 위치,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127-145.>, <鄭濟奎, 「白雲 景閑의 在家佛敎信仰觀」, 『古印刷文化』 제5집(1998), pp.125-145.>, <천혜봉, 「고려금속활자인쇄와 『직지심체요절』」, 『청주흥덕사지학회회의보고서』(1986), pp.83-104.>, <黃正夏, 「『白雲直指心體』의 刊行 背景」,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7-199.> 등이 있으며, 주요 논저로는 <千惠鳳, 『佛祖直指心體要節解題』(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등이 있다.

8)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朴文烈, 「高麗金屬活字本 『佛祖直指心體要節』의 現代의 意味」,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pp.125-154.>를 비롯하여 <천혜봉, 「고려금속활자인쇄와 『직지심체요절』」,

앞으로 『直指』의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경위를 비롯한 (1) 콜랭 드 플랑시, (2) 모리스 쿠랑, (3) 앙리 브베르 등에 관해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活字의 鑄造·組版·印出法

『直指』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金屬活字本이라는 점이다. 애석하게도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의 鑄造·組版·印出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해지는 것이 없다. 『直指』와 『慈悲道場懺法集解』를 인출해낸 흥덕사의 금속활자는 흥덕사 나람대로의 재래식 방법으로 금속활자를 주조하여 中央官署에서의 금속활자 주조에 비하여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조잡한 편이다. 그 결과 『直指』의 刊記에 나타나는 ‘宣光七年丁巳七月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의 ‘鑄字印施說’에 관하여 과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학자들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흥덕사의 미숙한 금속활자 鑄造術과 組版術로 인하여 『直指』에 사용된 금속활자 주조와 인출의 상태가 자못 치졸한 데에서 야기된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定說’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直指』의 금속활자는 ‘밀랍주조법’에 의하여 주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흥덕사에서 『直指』와 『慈悲道場懺法集解』 등이 인출되던 고려시대 당시의 製墨·製紙法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도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먹의 경우 목판인쇄용으로는 松烟墨이 좋고 금속활자인쇄용으로는 油煙墨이 좋으며, 종이의 경우 韓紙가 좋다는 정도의 연구⁹⁾에 머무르고 있다.

『청주흥덕사지학술회의보고서』(1986), pp.83-104.>, <千惠鳳, 『興德寺字本「直指心體」의 印刷文化的 意義』,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化(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學術會議)』, pp.39-49.>, <黃正夏, 『白雲直指心體』의 刊行 背景』,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7-199.> 등이 있으며, 주요 논저로는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를 비롯하여 <朴文烈, 『고인쇄출판문화의 이해』(청주: 태일문화사, 2003)>, <李世烈, 『직지 디제라티』(청주: 직지, 2000)>, <천혜봉, 『불조직지심체요결해제』(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청주고인쇄박물관, 『直指와 금속활자의 발자취』(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등이 있다.

9)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考察. 문헌정보학보 제4집(1990), pp.179-234>를 비롯하여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撰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 第7輯(1991), pp.1-31.>, <朴文烈, 『印刷術 起源說과 高麗時代 金屬活字印本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 第6輯(2000), pp.79-109.>, <潘吉星, 『중국,

앞으로 『直指』를 비롯한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金屬活字의 鑄造·組版·印出法은 물론 製墨·製紙法 등에 관해서 더욱 광범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¹⁰⁾이다.

3. 興德寺의 現狀과 課題

興德寺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直指』를 비롯하여 「慈悲道場懺法集解」 등을 금속활자로 간행한 우리나라 금속활자인쇄술의 中興地로 인식되면서부터였다.

3.1 興德寺의 現狀

흥덕사가 위치했던 청주시 雲泉洞 養兵山 동남쪽 기슭 일대는 일찍부터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많은 불교유물들이 발견되고 옛 寺址도 있었으나, 地表調査조차 제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고인쇄문화 국제심포지움(1997), pp.225-230.>, <심우준 역, 『활자인쇄법』, 『문리대학보(중앙대)』 제37집(1978), pp.38-42.>, <安春根, 『直指心經』活字의 資料考證, 『出版學』 제15집(1973), pp.3-5.>, <안춘근, 『직지심경』의 활자자료, 『고서연구』 제8호(1991), pp.44-51.>, <尹鍾均, 『丹山烏玉銘 高麗墨을 통해본 傳統墨』,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 <조형진, 『한중양국 활자인쇄의 기술적 과정』, 『서지학연구』 제17집(1999), pp.237-262.>, <전혜봉, 『고려주자인쇄술의 연구』, 『논문집(성균관대)』 제22호(1976), pp.117-146.>, <황선주, 『直指』는 금속활자본인가, 『古印刷文化』 第8輯(2001), pp.321-330.>, <황선주, 『흥덕사본 『직지』의 결함과 그 원인들』, 『古印刷文化』 第6輯(2000), pp.131-158.>, <黃正夏, 『厚生錄體』의 칠 활자 만드는 방법, 『古印刷文化』 第9輯(2002), pp.229-261.> 등이 있으며, 주요 저술로는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을 비롯하여 <朴文烈, 『고인쇄출판문화의 이해』(청주: 태일문화사, 2003)>, <朴文烈,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復元研究 結果報告書』(淸州: 淸州市, 2001)>, <孫寶基, 『한국의 고활자』(서울: 보진재, 1982)>, <오국진, 『직지활자 복원보고서』(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6)>, <曹炯鎮,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比較研究』(서울: 景仁文化社, 1990)>, <千惠鳳, 『韓國金屬活字本』(서울: 汎友社, 1993)>, <전혜봉, 『한국전적인쇄사』(서울: 범우사, 1990)>,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 고활자 학술회의』(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청주고인쇄박물관, 『直指와 금속활자의 발자취』(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등이 있다.

10) 최근 청주시에 의하여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를 복원하기 위한 기초조사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결과가 공간되지 않아 그 내용의 진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대로 실시된 적이 없었다.

1984년 12월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雲泉地區宅地開發事業’이 시작되면서 淸州大學校博物館에 의해 ‘雲泉洞寺址發掘調査’가 진행되었으나 이미 사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金堂址의 遺構가 있던 곳까지의 흙이 반출되어 사지의 원상은 물론 유구가 파손되고 유물들이 유실된 상태였다. 이에 1985년 충청북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훼손되지 않은 서반부 지역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박물관으로 하여금 ‘蓮塘里寺址’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 발굴조사에서 靑銅小鐘, 靑銅金剛杵, 靑銅禁口 등을 비롯한 佛器 25점이 수습되었으며, 사찰은 대략 9세기에 창건되어 14세기말 또는 15세기 초까지 존속하다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후 완전히 廢寺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지의 동반부가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발굴결과 확인된 유구는 동남쪽 일부가 손상된 금당지, 그리고 원상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西回廊址와 회랑지 끝에 붙은 薄塼建物址 등 전체 寺域圈의 서북반부지역 뿐이었다.

발굴조사를 거의 끝내고 주변을 정리하던 1985년 10월에 택지공사로 훼손된 사지의 동쪽에서 ‘甲寅五月日西原府興德寺禁口壺座’라는 명문이 있는 靑銅禁口와 靑銅佛器 등이 출토되어, 이 사지가 바로 우왕 3(1377)년에 현존하는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본이며 세계기록유산인 『直指』와 그 시기를 전후하여 『慈悲道場懺法集解』를 간행한 興德寺址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興德寺’라는 명문이 있는 禁口片 하나로 흥덕사지로 단정할 수 있는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한편에서는 鑄字所의 유구나 금속활자의 실물이 발견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흥덕사지의 주변지역과 사지에서 반출해간 흙으로 조성된 택지지역 등을 금속탐지기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주자소나 금속활자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皇統十年庚申四月 日興德寺依 止重大師頌仁往生淨土之愿佛鉢一盒具鈿雲口入 重二斤二兩印’라는 40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靑銅佛鉢을 발굴하였는데, 이는 흥덕사를 재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 또한 흥덕사를 처음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興德寺’라는 명문이 있는 금구편의 나머지 몸통부분이 1986년 6월에 발견되어 국고에 귀속됨으로써 8개월만에 제 짝을 찾았는데,

그 몸통부분의 측면에 연속된 명문의 전문은 ‘甲寅年月日 西原付興德寺禁口臺坐 改造入重三拾貳斤印’이었다.

흥덕사의 배치는 남향의 單塔 가람으로서 중심축 선상에 중문·탑·금당·강당이 있고, 이들 좌우로 동·서회랑이 둘러진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양식을 따랐으며, 각 건물들은 후대에 중수를 거듭하면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¹¹⁾되었다. 옛 흥덕사가 위치했던 청주시 운천동 866번지 일대는 현재 사적지 제315호로 지정되어 있고 40,990㎡(12,400평)의 부지에 80㎡(24평)의 金堂이 복원되어 있으며, 관리는 淸州古印刷博物館에서 담당하고 있다.

3.2 興德寺의 課題

興德寺址는 서쪽의 養兵山이 남으로 달려내려 오다가 사지의 북쪽과 남쪽의 上·下峰이 동으로 꺾여 있고 청주 시내와 無心川이 내려다보이는 동향의 지세이다. 또 택지공사 전에 보이던 사지 동쪽 끝의 경사지가 石築으로 쌓았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향의 사찰지로 추정되기도 했으나 발굴결과 지형과는 무관하게 남향이라 할 수 있는 27°방향의 가람구조가 확인되었다. 남쪽의 문지와 탑지는 파괴되어 확인할 수 없고 현존하는 金堂址와 講堂址, 西回廊址의 관계로 보아 초창 당시에는 남북의 일직선상에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있고 동서남북에 회랑으로 외곽을 형성한 전통적인 平地一塔竝列形이었음이 확실하며, 고려시대에 중수하면서 강당지가 약간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제기¹²⁾되었다.

11)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金光植, 『興德寺址 發掘과 『直指心體』, 『忠北郷土文化』 第9輯(1998), pp.73-84.> 등이 있으며, 주요 저술로는 <金榮振, 『忠北文化論攷』(서울: 郷學社, 1997)>, <淸州大學校博物館, 『淸州雲泉洞寺址 發掘調査報告書』(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1985)>, <淸州大學校博物館, 『淸州興德寺址 學術會議報告書』(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1986)>, <淸州市, 『興德寺復元 基本計劃 研究報告書』(淸州, 淸주시, 2004)> 등이 있다.

12)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金光植, 『興德寺址 發掘과 『直指心體』, 『忠北郷土文化』 第9輯(1998), pp.73-84.> 등이 있으며, 주요 저술로는 <金榮振, 『忠北文化論攷』(서울: 郷學社, 1997)>, <淸州大學校博物館, 『淸州雲泉洞寺址 發掘調査報告書』(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1985)>, <淸州大學校博物館, 『淸州興德寺址 學術會議報告書』(淸州: 淸州大學校博物館, 1986)> 등이 있다.

그러나 興德寺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취나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도 전혀 없다. 흥덕사지의 발굴을 통해서 흥덕사의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되었으나, 흥덕사가 화재로 없어지게 된 이유 등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또한 강당지 서편에 있던 薄塼建物址는 후대의 건물지로 추정되었으나 강당지 동편에 똑같은 건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건물의 용도도 經版閣으로 추정되었으나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근년에 이르러 지역 불교계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흥덕사 복원에 관한 담론이 있는 후에 이에 관한 지역 여론이 고조되면서 ‘興德寺復元推進委員會’가 결성되었으며, 급기야는 청주시에 의하여 <흥덕사복원 기본계획>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출간¹³⁾되었다. 흥덕사의 복원은 매우 신중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중지를 모아 더욱 심도있게 연구된 결과에 따라 그 진행의 정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4. 淸州古印刷博物館의 現狀과 課題

淸州古印刷博物館은 1992년 3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直指』를 인쇄한 청주 흥덕사지에 개관되었다.

4.1 淸州古印刷博物館의 現狀

淸州古印刷博物館은 우리 민족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인쇄술을 창안하고 발전시킨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입증시키고 우리 조상들의 위업을 후세에 길이 전하며, 우리나라 인쇄출판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인쇄출판관련 전문박물관이다. 淸州古印刷博物館은 『直指』를 주제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直指世界化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13) 이에 관하여는 <청주시, 『흥덕사복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청주, 청주시, 2004)>를 참간할 것.

淸州古印刷博物館은 원래 충청북도의 산하(1992. 3~1994. 7)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94년 8월부터는 청주시에 이관되어, 지금은 淸州市事業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淸州古印刷博物館은 40,990㎡(12,400평)의 부지에 전시실(5),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도서실, 인쇄체험실, 기념품판매소 등 5,097㎡(1,541평)의 시설이 있으며, 소장된 자료는 2002년 현재 891종 1,759점에 이르고 있다. 운영조직의 기구로는 1과에 관리·시설·학예 등의 3담당이 있다.

淸州古印刷博物館은 개관 이래 (1) '淸州印刷出版祝祭'의 개최, (2) '直指찾기運動'의 전개, (3) '한국의 옛 인쇄문화 국·내외 순회전시'의 개최, (4) 『『直指』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운동』, (5) '외국의 저명한 박물관과의 자매결연', (6) '유네스코 直指賞의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가 인정되어 문화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박물관으로 선정(2001)되기도 하였으며, 박물관의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부의 '박물관 홈페이지 청소년 권장 최우수사이트'로 선정(2002)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문학술 기관지인 『古印刷文化』, 學術叢書, 翻譯叢書, 各種 報告書, 博物館圖錄 등의 발간을 비롯하여 國際學術會議나 학술세미나 등의 학술활동 및 국내외의 전시회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세계 속에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의 위상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淸州古印刷博物館의 탁월한 업적이 뒷받침된 때문이었던 것¹⁴⁾이다.

14) 이에 관한 주요 논저로는 <金榮振, 『忠北文化論攷』(서울: 향학사, 1997)>를 비롯하여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朴文烈, 『고인쇄출판문화의 이해』(청주: 태일문화사, 2003)>,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韓國古印刷文化』(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 고활자 학술회의』(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청주고인쇄박물관, 『直指와 금속활자의 발자취』(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청주시, 『직지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淸州: 청주시, 2003)>, <청주시, 『2003청주직지축제 결과 보고서』(淸州: 청주시, 2003)>, <청주시, 『홍덕사복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청주, 청주시, 2004)>,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 결과보고서』(淸州: 청주시, 2000)>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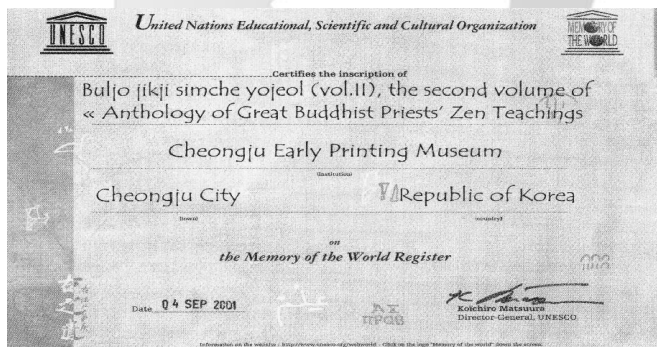
4.2 淸州古印刷博物館의 課題

淸州古印刷博物館의 시설적인 규모는 세계 어느 박물관에 못지않다. 그러나 지금의 淸州古印刷博物館의 시설로는 미래지향적인 고인쇄문화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의 시설은 앞으로 10년을 못가서 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直指』와 우리나라 고인쇄문화의 홍보를 중심으로 하던 홍보중심의 고인쇄문화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直指』와 우리나라 고인쇄문화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중심의 고인쇄문화 전문박물관으로 발전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淸州古印刷博物館의 직제와 기능을 연구중심의 직제와 기능으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직 학예연구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 直指世界化의 現狀과 課題

『直指』는 미래의 청주를 지남할 수 있는 귀중한 세계기록유산이다.



〈圖版 3〉金屬活字本『直指』의 유네스코 世界記錄遺産 認證書

5.1 直指世界化의 現狀

『直指』의 미래적 가치를 인식한 청주시는 『直指』를 통한 청주의 세계화를 도모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直指世界化의 첫발은 이미 淸州古印刷博物館이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각지에서 ‘한국의 옛 인쇄문화 특별전’을 통하여 『直指』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개월간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가 개최되고 2001년 9월 4일 『直指』가 ‘세계의 기억’에 등재됨으로써 直指世界化는 본격화되었다. 2003년부터는 매년 9월 4일을 전후하여 시민축제의 일환으로 ‘淸州直指祝祭’를 개최하여 『直指』는 물론 청주의 문화를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청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유네스코직지상(the UNESCO Jikji Prize)’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直指世界化를 위한 논리의 개발(定說構築)이나 直指에 관한 철학(直指觀)을 확립하는 데에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듯하다.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는 ‘直指에서 디지털까지’를 주제로 『直指』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천명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주시와 유네스코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直指』가 ‘세계의 기억’에 등재된 것은 세계인이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등 광범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 평화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UN)의 전문기구이다. 1995년부터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의 기억 프로그램(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을 통하여 세계적 기록유산의 보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 프로그램’은 (1) 세계적 수준의 중요성을 지닌 기록유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한 보존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역적 수준의 중요성을 지닌 기록유산의 보존을 장려하며, (2) 전자화를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평등한 이용을 장려하며, (3) 기록유산에 기초해서 만들

어진 자료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세계에 널리 보급하며, (4) 세계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록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의 기억’ 선정기준은 (1) 영향력(Influence), (2) 시간(Time), (3) 장소(Place), (4) 사람(People), (5) 대상·주제(Subject·Theme), (6)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7)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등 1차적인 기준과 (8) 원상태로의 보존(Integrity), (9) 희귀성(Rarity) 등 2차적인 기준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에는 이러한 선정기준을 만족시키고 국제 자문위원회에 의해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유산들이 등재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에게는 ‘세계의 기억’ 목록에 대응하는 자국의 국내 기록유산목록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다.

『直指』가 ‘세계의 기억’의 등재됨으로써 국제적 보존·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로의 발전에 대비할 수 있고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혜택이 가능하며, ‘세계의 기억’이라는 휘장의 사용과 유네스코의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¹⁵⁾

5.2 直指世界化의 課題

直指世界化를 위한 청주시의 노력은 『直指』를 ‘세계의 기억’에 등재한 데에 머무르지 않고 ‘유네스코직지상’의 제정 등을 통하여 直指世界化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3년 청주시는 직제개편을 통하여 기획행정국의 문화관광과 아래에 直指世界化를 전담하는 直指系를 신설한 바 있었으며, 2004년에는 다시 직제개편을 통하여

15) 이에 관한 주요 논저로는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韓國古印刷文化』(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을 비롯하여 <청주고인쇄박물관, 『直指와 금속활자의 발자취』(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청주시, 『직지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淸州: 청주시, 2003)>, <청주시, 『2003청주직지축제 결과보고서』(淸州: 청주시, 2003)>, <청주시, 『홍덕사복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청주, 청주시, 2004)>,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 결과보고서』(淸州: 청주시, 2000)> 등이 있다.

기존의 직지계를 해체하고 기획행정국 아래에 直指世界化事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교육홍보팀 등으로 구성된 直指世界化推進團을 신설하여 直指世界化에 전력하고 있다.

그러나 直指世界化推進團의 성공적인 直指世界化를 위해서는 우선 『直指』에 관한 ‘定說’의 구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완벽한 계획수립과 함께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예산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며, 또한 淸州古印刷博物館의 기존의 直指世界化事業과의 중복된 업무조정도 매우 중요한 사항의 하나일 것이다.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하관계에 있는 복수의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의 시발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상하관계의 조직들이 서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수행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그 업무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목적달성의 결과는 明若觀火한 것이다.

6. 새로운 <直指文化>의 創出을 위하여

『直指』의 정신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直指文化>의 창출에 관한 노력은 ‘2000 청주인쇄출판박람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6.1 <直指文化>의 現狀

『直指』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계승하기 위한 <直指文化>에 관한 담론은 ‘2000 청주인쇄출판박람회’의 학술회의에서부터 제기¹⁶⁾되어 왔다. 빌 게이츠의 패러다임과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현실과 미래를 강력하게 지배하는 상황에서 『直指』의

16) 이에 관한 주요 논술로는 <김승환, 『새로운 직지문화의 창조』, 『제3회 청주국제인쇄출판문화학술회의 1부 자료집』(2000), pp.281-294.> 등이 있으며, 주요 논저로는 <金榮振, 『忠北文化論攷』(서울: 향학사, 1997)>, <朴文烈, 『고인쇄출판문화의 이해』(청주: 태일문화사, 2003)>, <청주시, 『2003청주직지축제 결과보고서』(淸州: 청주시, 2003)>,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 결과보고서』(淸州: 청주시, 2000)> 등이 있다.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직지정신을 새롭게 구축하여 시대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直指文化>를 창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발명과 『直指』에 관하여 비교문화사적 접근과 정신 문화의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일반의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6.2 <直指文化>의 課題

『直指』는 ‘세계의 기억’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이다. 『直指』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된 세계기록유산인 만큼, 흥덕사는 『直指』의 요람으로써 금속활자인쇄술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直指』의 위상이 곧 興德寺의 위상이며, 흥덕사의 위상이 곧 『直指』의 위상에 직결되는 것이다.

『直指』는 결코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한국이나 프랑스의 것도 아니다. 『直指』는 인류사에 길이 남을 세계적인 기록유산이다. 『直指』가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直指』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바탕으로 『直指』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연구와 예술화를 통한 새로운 <直指文化>가 창출되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直指文化>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直指文化>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성숙되어야 『直指』를 비롯한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가 새로운 미래의 문화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直指世界化와 새로운 <直指文化>의 창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直指』의 내용과 언어의 문제이다. 『直指』의 내용은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이른바 不立文字의 禪에 관한 내용이며,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는 漢字이다. 세계에는 많은 문자가 있고 그 문자들 나름대로의 이해와 감동을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다. 단순히 『直指』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배포한다고 해서,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동과 이해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의 동일한 이해와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直指』의 예술화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예술은 인

간의 가장 으뜸가는 표현수단이며 표현의 꽃이다. 『直指』의 예술화는 표현하기 어려운 『直指』의 내용과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이해와 감동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표현수단이 될 것이다.

<直指文化>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고 『直指』의 예술화를 통한 새로운 <直指文化>가 구현된다면 直指世界化는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直指』의 예술화는 시각예술 분야인 미술(회화), 건축, 조각, 공예, 디자인, 사진 등에서는 물론 공연예술 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등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일례로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는 『直指』의 예술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천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直指』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直指』에 관한 확고한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直指文化>를 창출하여 세계문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直指文化>의 창출은 淸州古印刷博物館과 直指世界化推進團을 중심으로 <直指文化>의 기반이 조성되어 새로운 <直指文化>가 구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直指文化>를 창출하여 直指世界化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直指』를 비롯한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가 새로운 미래의 문화세계에서 영원토록 성장해 나갈 것이다.

7. 結 論

『直指』는 고려 우왕 3(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출되었다. 이는 세계 인쇄출판문화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인쇄출판문화의 우수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청주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淸州古印刷博物館이 건립되어 고인쇄출판문화의 본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청주의 고인쇄출판문화에 관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直指』를 유네스코 ‘세계의 기억’에 등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直指』는 ‘세계의 기억’에 등재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세계 모든 인류의 기록유

산이다. 『直指』가 세계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진정한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直指』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통한 ‘직지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直指文化>의 창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直指文化>의 창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直指』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해와 관심이 결집되고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새로운 <直指文化>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1) 淸州古印刷博物館을 중심으로 국가적·국제적인 학술연구소가 설립되어 『直指』의 ‘定說’ 확립과 활자의 복원을 통한 학술적 토대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세계적인 홍보와 차세대 교육이 강구되어야 『直指』가 세계의 문화로 성장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直指』의 세계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淸州古印刷博物館을 세계적인 학술연구중심의 전문박물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인쇄출판박람회, 국제학술회의 등의 지속적인 개최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완벽한 장기발전계획을 통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淸州古印刷博物館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프로젝트가 준비되어야 한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과의 공동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망라된 학술적·기술적 교류를 통하여 「직지」가 새로운 미래의 문화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直指』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계적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기록유산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만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일 것이다.

(5) 淸州古印刷博物館에 대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인쇄출판문화를 연구하는 서지학과 금속활자복원을 위한 인재의 양성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6) 『直指』를 주제로 하는 엑스포(Exposition) 혹은 비엔날레(Biennial) 형태의 淸州印刷出版文化博覽會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21세기 벽두에 개최되었던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는 直指世界化의 礎石을 마련한 성공적인 박람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다. 지금의 淸州直指祝祭로는 성공적인 直指世界化와 淸州의 世界化가 보장되기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새로운 <直指文化>의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규모의 印刷出版文化博覽會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7) ‘직지찾기운동’은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고인쇄출판문화유산인 삼국시대의 목판본 『無垢淨光大陀羅尼經』, 고려시대 금속활자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詳定禮文』, 『慈悲道場懺法集解』 등의 원본을 찾는 운동으로 확대·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直指』는 새로운 문화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우리 모두 세계문화사에서 『直指』가 자랑스러운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이해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直指世界化와 淸州의 世界化를 위해서는 새로운 <直指文化>의 창출이 시급한 것이다.

『直指』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청주중심주의(Cheongjulism)에서 벗어나 국가중심주의(Nationalism)로 세계중심주의(Globalism)로 전환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直指』를 주제로 하는 淸州印刷出版文化博覽會가 매년 혹은 격년으로 개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直指』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直指』에 관한 확고한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直指文化>를 창출하여 세계문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단행본류 >

- 金東華, 『白雲和尚語錄 解說』, 『韓國의 思想大全集』 第4卷(1972), 解說條.
- 金斗種,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 金榮振, 『忠北文化論攷』, 서울: 향학사, 1997.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史論』, 청주: 피아이, 1999.
- 朴文烈, 『고인쇄출판문화의 이해』, 청주: 태일문화사, 2003.
- 朴文烈,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復元研究 結果報告書』, 淸州: 淸州市, 2001.
- 박병선, 『한국의 인쇄』, 서울: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白雲景閑 編著, 如天無比 監修, 龍學 譯註, 『활자의 혼을 찾아서』, 청주: 西原大學校 湖西文化研究所, 1999.
- 白雲景閑和尚 抄錄, 圓照覺性 譯, 『佛祖直指心體要節』, 서울: 玄音社, 1999.
- 白雲和尚 著, 朴文烈 譯, 『佛祖直指心體要節』, 서울: 汎友社, 1997.
- 白雲和尚 著, 朴文烈 譯, 『譯註 佛祖直指心體要節』,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6.
- 白雲和尚 著, 『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 國立中央圖書館藏本.
- 白雲和尚著, 『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 佛甲寺藏本.
- 白雲和尚著, 『佛祖直指心體要節』. 木版本. 藏書閣藏本.
- 白雲和尚 著, 『直指 下』 影印本, 서울: 文化財管理局, 1973.
- 白雲和尚 著,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影印本,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2~2004.
- 白雲和尚 著, 李世烈 譯, 『直指 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7.
- 白雲和尚 著, 張二斗 譯, 『註解 直指 下』,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1.
- 釋璨禪師 著, 朴文烈 譯, 『白雲和尚語錄』, 서울: 汎友社, 1998.
- 釋璨禪師 著, 朴文烈 譯, 『譯註 白雲和尚語錄』,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8.

- 孫寶基, 『韓國古印刷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III : 科學技術史』, 서울: 高麗民族文化研究所, 1968.
-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寶晉齋, 1971.
- 孫寶基, 『한국의 고활자』, 서울: 보진재, 1982.
- 오국진, 『직지활자 복원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6.
- 李世烈, 『직지 디제라티』, 청주: 직지, 2000.
- 曹炯鎭,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比較研究』, 서울: 景仁文化社, 1990.
- 천혜봉, 『불조직지심체요절해제』, 서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 千惠鳳, 『韓國金屬活字本』, 서울: 汎友社, 1993.
-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1990.
-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의 옛 인쇄문화; 韓國古印刷文化』,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
- 청주고인쇄박물관, 『한국 고활자 학술회의』,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청주고인쇄박물관, 『直指와 금속활자의 발자취』,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청주대학교박물관, 『청주운천동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청주: 청주대학교박물관, 1985.
- 청주대학교박물관, 『청주흥덕사지 학술회의보고서』, 청주: 청주대학교박물관, 1986.
- 청주시, 『직지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전략』, 淸州: 청주시, 2003.
- 청주시, 『2003청주직지축제 결과보고서』, 淸州: 청주시, 2003.
- 청주시, 『흥덕사 복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淸州: 청주시, 2004.
-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 결과보고서』, 淸州: 청주시, 2000.
- 韓國出版學會, 印刷出版文化의 起源과 發達에 관한 研究 論文集.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1996.

<논문류>

- 金光植, 『直指』觀察記, 『古印刷文化』第2輯(1995), pp.179-190.
- 金光植, 『興德寺址 發掘과 『直指心體』』, 『忠北郷土文化』第9輯(1998), pp.73-84.
- 김기태, 『『직지심경』의 보존경위에 대한 고찰』, 『규장각』 제6집(1982), pp.63-89.
- 金基泰, 『『直指心經』의 存續經緯에 대한 研究』, 『仁川教育大學校論文集』(1995), pp.67-83.
- 김동환, 『『佛祖直指心體要節』의 내용과 유통』,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91-120.
- 金聖洙,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略書名에 관한 提言』, 『古印刷文化』第6輯(2000), pp.111-129.
- 南權熙, 筆寫本『直指心體要節』2種의 書誌的 考察. 古印刷文化 第5輯(1998), pp.
- 南權熙, 興德寺字로 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考察. 문헌정보학 보 제4집(1990), pp.179-234.
- 南權熙, 『興德寺字로 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撰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第7輯(1991), pp.1-31.
- 라경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 동·서양 금속활자 비교 연구』, 『古印刷文化』第8輯(2001), pp.253-320.
- 朴文烈, 『『佛祖直指心體要節』의 書名 통일방안』,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45-86.
- 朴文烈, 『高麗金屬活字本 『佛祖直指心體要節』의 現代의 意味』, 『書誌學研究』 제 17집(1999), pp.125-154.
- 朴文烈, 『白雲和尚과 『佛祖直指心體要節』』, 『인쇄문화국제포럼』(1997), pp.120-135.
- 朴文烈, 『印刷術 起源說과 高麗時代 金屬活字印本에 관한 研究』, 『古印刷文化』第 6輯(2000), pp.79-109.
- 박병선, 『『직지심경』의 명명 사유』,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1-8.
- 潘吉星, 『중국, 한국, 유럽의 초기 금속활자 인쇄술 비교연구』, 『동서고인쇄문화 국

- 제십포지음(1997), pp.225-230.
- 孫寶基, 『直指心經』; 金屬活字 考證의 經緯와 그 意義, 『圖協月報』, 제14-3호 (1973. 3), pp.3-5.
- 심우준 역, 『활자인쇄법』, 『문리대학보(중앙대)』 제37집(1978), pp.38-42.
- 安春根, 『直指心經』活字의 資料考證, 『出版學』 제15집(1973), pp.3-5.
- 안춘근, 『직지심경』의 활자자료, 『고서연구』 제8호(1991), pp.44-51.
- 윤병태, 「고려시대의 활자인쇄문화」, 『복현문화』 제13집(1979), pp.33-48.
- 윤병태, 「고려인쇄문화상의 『直指心體要節』의 위치」, 『直指와 한국고인쇄문화(제5회 청주인쇄출판축제 학술회의)』(1999), pp.127-145.
- 윤병태, 「奎章閣圖書와 韓國活字印刷史研究; 그 研究史와 史料를 中心으로」, 『奎章閣』 창간호(1976), pp.67-90.
- 尹炳泰, 「韓國의 活字印刷文化」, 『古印刷文化』 第6輯(2000), pp.7-78.
- 尹鍾均, 「丹山烏玉銘 高麗墨을 통해본 傳統墨」,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
- 李世烈, 『直指』의 어원 및 책이름에 관한 연구,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201-287.
- 李世烈, 『직지』의 내용 출전 및 이체자 교감; 금속활자본 『직지』 하권을 중심으로, 『直指의 世界(제2회 호서문화학술대회)』 (1998), pp.66-140.
- 鄭濟奎, 「白雲 景閑의 在家佛教信仰觀」, 『古印刷文化』 第5집(1998), pp.145-160.
- 趙炳舜, 「高麗書籍院 活字에 대한 研究; 所謂 癸未小字 組版術을 中心으로」, 『季刊書誌學報』 第18號(1996), pp.3-20.
- 조형진, 「한중양국 활자인쇄의 기술적 과정」, 『서지학연구』 제17집(1999), pp.237-262.
- 千惠鳳, 「高麗 寺鑄活字本 『불조직지심체요절』, 『湖西文化論叢』(1999), pp.1-11.
- 천혜봉, 「고려금속활자인쇄와 『직지심체요절』」, 『청주홍덕사지학술회의보고서』 (1986), pp.83-104.
- 천혜봉, 「고려주자인쇄술의 연구」, 『논문집(성균관대)』 제22호(1976), pp.117-146.
- 천혜봉, 「세계 초유의 창안인 고려주자 인쇄」, 『규장각』 8(1984), pp.63-75.
- 千惠鳳, 「興德寺字本 『直指心體』의 印刷文化的 意義」, 『世界속의 韓國印刷出版文

化(第1回 國際印刷出版文化學術會議)』, pp.39-49.

황선주, 「『直指』는 금속활자본인가」, 『古印刷文化』 第8輯(2001), pp.321-330.

황선주, 「홍덕사본 『직지』의 결함과 그 원인들」, 『古印刷文化』 第6輯(2000), pp.131-158.

黃正夏, 「『白雲直指心體』의 刊行 背景」, 『古印刷文化』 第7輯(2000), pp.187-199.

黃正夏, 「『白雲直指心體』의 刊行考」, 『松谷孫弘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98), pp.175-188.

黃正夏, 「『厚生錄體』의 철활자 만드는 방법」, 『古印刷文化』 第9輯(2002), pp.229-261.

